

# 조선전기 승정원의 건축공간에 관한 연구

이 정 국\*

(다리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대표)

주제어 : 승정원, 정원청, 주서청, 승지방, 주서방

## 1. 서론

궁궐건축은 국가 최고 통치권자인 임금의 관료들과 국정운영을 논의하는 중심공간이자 임금의 생활공간으로 크게 임금의 국가운영을 위한 공적공간으로서의 정무공간(政務空間)과 사적인 생활공간 그리고 보조공간으로서의 관료들의 업무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궁궐건축은 각각의 영역이 독자성을 가지면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통합된 궁궐건축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궁궐건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공간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궁궐건축에 대한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많이 증가했으며 조선 전기 궁궐건축 관련 논문도 증가했다.<sup>1)</sup> 그러나 궁궐의 공간관련

논문은 임금을 주대상으로 궁궐의 중심공간인 정전과 편전, 침전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궁궐이 정치의 중심지로서 크고 작은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정치행위가 이루어지는 건축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조선시대에는 상참(常參)이나 경연(經筵) 등과 같은 의례를 통해서 정사를 논하기도 했지만 많은 업무들이 왕명출납을 담당했던 승정원을 통해 이루어졌었다.

曹在模, 「朝鮮時代 宮闕의 儀禮運營과 建築形式」,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8

장재혁, 「조선전기 경복궁의 건축형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

먼저 광순조의 연구는 기존의 배치에 관한 추정논문에 덧붙여 문헌에 의한 궁궐운영과 발굴에 의한 복원고찰을 통해 조선전기 경복궁의 배치특성을 파악한 논문이다. 여기에서는 중심공간만이 아니라 세자궁도 포함하고 있다. 박희용의 논문은 창덕궁의 정전과 외조영역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전반기에 걸쳐 변화를 파악한 논문이다. 조재모의 논문은 궁궐의 중심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정전, 편전, 침전을 儀禮設行的 중심공간으로 규정하고 의례와 공간의 관계를 파악한 논문이다. 장재혁의 논문도 조재모의 논문과 마찬가지로 儀禮 특히 『國朝五禮儀』에 의한 禮制를 바탕으로 건축공간을 해석하고 분석한 논문이다.

\* 교신저자, 이메일: ljk3491@hanmail.net

1) 조선 전기 궁궐건축과 관련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다.

郭淳熙, 「宮闕運營을 통하여 본 朝鮮前期 景福宮의 配置特性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2

박희용, 「창덕궁 정전 영역의 구성과 운영」,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2

승정원은 정3품 당상관으로 실직(實職)을 가진 고위 관리들이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했던 궐내각사의 중요한 공간이며 출납과정을 통해 임금과 관료들을 연결하는 동선의 중심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승정원의 건축공간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궁궐건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제로 승정원의 조직과 업무처리 과정을 이해하고 승정원의 공간구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의 시기는 조선전기로 하였다. 이 시기는 조선 문화의 기본 골격이 형성되고 조선의 독자적인 문화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으며 궁궐건축 역시 조선 전기 궁궐건축의 틀이 완성되었다. 궁궐들은 임진왜란에 의해 소실되는데 창덕궁은 얼마 안 되어 중건되면서 이전 건축공간과의 연속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전기 법궁의 역할을 했던 경복궁은 고종 때에 이르러서야 중건하게 된다. 경복궁은 이처럼 270여 년이라는 시간적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중건 이전의 건축공간을 이해하는 것은 건축역사의 통시적 관점에서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조선전기 궁궐의 건축공간을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당시 승정원의 건축공간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 의해 지금까지 연구대상이 궁궐의 중심 공간에 한정되었던 것이 주변 공간으로 확장되고 관료들의 업무공간을 이해함으로써 조선 전기 궁궐의 건축공간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2. 승정원의 조직과 업무처리과정

### 2-1. 승정원의 조직과 기능

#### (1) 승정원의 조직과 업무인원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고 고려의 제도를 받아들여 군기와 왕명출납을 총괄하는 부서로 중

추원을 두었다. 정종 2년 4월의 관제개혁에서 중추원 승지가 승정원 승지로 개정되어 처음으로 왕명의 출납을 전담하는 승정원이 설치되고 군기와 왕명의 출납이 분리되었다. 태종 5년 정월의 관제개혁에서 동부대언 1인이 증치되어 형조의 사무를 관장케 됨으로써 승정원의 육승지제도<sup>2)</sup>가 성립하게 되었다. 세종15년 9월 지신사는 도승지, 대언은 승지로 개칭되어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등 육승지제도가 완성되었고 이러한 직제가 『경국대전』에 그대로 등재되었고<sup>2)</sup> 이후 조선시대 후기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처럼 세종대 이전까지는 잦은 관제의 변화로 승정원을 포함한 관아건축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승정원에 소속된 전체 인원은 항상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경국대전』에 기록된 승정원 소속 인원을 보면 정3품 당상관인 도승지, 좌, 우승지, 좌,우부승지, 동부승지 6명과 정7품인 주서가 2명, 그리고 서리(書吏)가 22명이 있으며 별도로 각 승지에게 1명의 서리가 배속되었다. 또한 사령(使令)인 조례(阜隸)가 20명, 3품 당상관에 해당되는 승지는 근수(根隨)가 3명으로 6명의 승지에게는 모두 18명의 근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차비노(差備奴)가 9명이고 근수노(根隨奴)는 18명이었다. 이들의 인원은 모두 101명이다. 다만 궐내에서 거느릴 수 있는 근수의 수는 승지가 각각 2명, 궐외에서는 7명이었으며, 주서는 궐내에서 1명, 궐외에서 3명이었다. 따라서 궐내에서의 승정원의 소속 인원을 종합해보면 모두<sup>3)</sup> 95명이 된다.

2) 김장현, 「朝鮮初期 承政院에 관한 研究 - 承旨의 鈐注機能과 任用實態를 중심으로 -」, 韓國學論集 10,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6 5-6쪽

3) 『經國大典』 권 1 吏典 正三品衙門, 권 4 兵典 京衛前, 권5 刑典 참조. 그런데 근수의 경우는 세종 때 승지들에게 특별히 근수(根隨)를 7명으로 정해주기도 했으며 (『세종실록』 30권, 7년(1425) 11월 14일(기유)) 16세기 중후기의 경우 병방승지에게 구사 10명, 차비 6명이 있

이 인원들이 모두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업무를 수행했던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다른 관아의 관리들과 그들의 수종(隨從)까지 고려한다면 승정원은 수십 명 이상이 수시로 출입하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승정원에는 승지와 주서 및 서리 등 승정원에 소속된 인원만 상주했던 공간은 아니다.

사료 A

- 1) 이공(李拱)의 병상(病狀)은 우리들만 보고 알았을 뿐 아니라, 그 때 함께 있던 좌부승지 안침(安琛)·동부승지 이조양(李朝陽), 그리고 상전 엄용선(嚴用善)·가주서 김봉(金崙)과 사관들이 모두 보고 알았다.<sup>4)</sup>
- 2) 사국(史局)이 몹시 허술합니다. 정원은 곧 주서·한림이 있는 곳인데, 문관들이 으레 모두 드나들어 시끄럽고 요란하니, 사국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sup>5)</sup>
- 3) 승정원 곁에 가까운 집 한 칸을 주어서 사관을 거쳐하게 하여, 무릇 장계나 하교한 일을 모름지기 사관의 기록을 거친 뒤에 육조와 대간에 내리는 것을 정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sup>6)</sup>
- 4) 사관 두 사람이 본래부터 입직하지만 한 사람은 정원에 있고 한 사람은 예문관에 있는데, 두 사람 다 정원에 있어야 하니, 정원 곁에 따로 사청(史廳)을 설치한다면 좋을 듯합니다.<sup>7)</sup>

사료 A의 1)은 회령부사로 임명된 이공이

기도 했었는데(柳希春 『미암일기(眉巖日記草)』 제2집 己巳 八月二十八日. 潭陽鄉土文化研究會 1993. p.158) 이것으로 보아 이 인원이 일정하게 유지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4) 『성종실록』 16년 을사(1485) 1월 5일(무자)  
 5) 『중종실록』 14년 기묘(1519) 6월 2일(갑자)  
 6) 『세종실록』 7년 을사(1425) 11월 3일(무술) 및 이원(李原) 『容軒先生文集』 卷之三 疏 請置左右史疏  
 7) 『중종실록』 14년 기묘 (1519) 7월 3일(갑오)

병으로 사직하기 위해 승정원에 왔을 때의 일로 당시 승정원에는 승지와 가주서, 사관, 상전이 함께 있었다. 승지와 주서는 승정원소속이었으며 임금께 상계하기 위해 승정원에서 청한 상전뿐만 아니라 사관도 참여하고 있다. 사관의 업무는 경연에서의 일과 승정원을 통해 출납하는 내용들을 기록하는 일이다.<sup>8)</sup> 물론 주서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승정원일기를 만들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사관도 기록하여 사초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승정원에서 왕명을 출납할 때는 사관이 필히 참석했고 만약 사관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었다.<sup>9)</sup> 따라서 사료 A의 2)에서처럼 주서와 한림이 있는 곳을 사국이라 했고 사관인 한림이 승정원에 있었던 것이다. 사관은 승정원에서 숙직도 하였다. 세종 때인 사료 A의 3)에서 사관이 항상 승정원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관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경연이나 상참과 같은 곳에 사관이 2명 참여하는데 승정원에는 사관 1명만 파견되어 있었다. 그래서 중종 때인 사료 A의 4)처럼 정원에 사청을 설치해주도록 요청하였는데 이때도 별도의 사청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후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sup>10)</sup> 이처럼 승정원에는 승정원소속 인원뿐만 아니라 사관도 상주하였던 것이다.

(2) 승정원의 기능

『경국대전』에 의하면 승정원의 역할은 왕명출납이었으며 구성원으로는 승지와 주서가 있었다. 그런데 승정원은 왕명출납뿐만 아니라 승지들이 다른 직임을 겸임함으로써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먼저 승지 1명이 경연에 입

8) 『중종실록』 15년 경진(1520) 3월 4일(임진)  
 9) 『중종실록』 16년 신사(1521) 3월 8일(경신) 출납할 때는 사관이 참여하여 듣게 해야 한다는 법이 있었다. (『성종실록』 25년 갑인(1494) 6월 25일(임오))  
 10) 정약용(丁若鏞) 『경세유표(經世遺表)』 제1권 춘관예조(春官禮曹) 제3 예관지속(禮官之屬)條

시하였고 사옹원과 내의원의 부제조 중 1명을 승지가 겸임하였다. 도승지는 예문관 직제학과 함께 상서원의 장관도 겸하였는데 이는 왕명출납과 관련이 있었다.

승지는 임금이 궁궐에 부재중일 때는 최소한 명이 남아 여러 사무를 받아들이고 쉼 주위의 경비책임도 관장했다. 야간에 궁궐내외를 통행할 때에 필요한 통행표신을 발급하였으며 중요 관서의 직속관원뿐만 아니라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직속하는 여러 장교, 군사들 역시 야간 및 陣中의 통행에는 승정원에서 발급하는 표신이 있어야 했다. 또한 궐문의 개폐는 역정서 소속인 사약이 담당했는데 열쇠는 승지에게 수납하도록 되어 있었다.<sup>11)</sup>

주서(注書)의 주요 기능으로는 『승정원일기』의 기록이 있다. 또한 승지 등과 함께 국왕이 임석한 궁내외의 각종 공사 행사, 즉 경연, 친강, 강무 등에 국왕을 시종하였으며 승정원 内の 문서관리, 궐내 숙직, 왕명이나 승지의 지휘를 받아 정무의 논의를 매개하고 정무를 하달하였다. 그리고 승지의 계사에 임석하였으며 時事의 기록과 『왕조실록』 편찬에 참여하고 내외 관아와 관원을 규찰(糾察)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sup>12)</sup>

이처럼 승정원은 왕명출납뿐만 아니라 승지들의 견직에 의한 다양한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승정원은 승정원 소속 인원만 활용했던 공간이 아니고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각 관아의 관원들이 출입하고 머물렀던 공간이었다.

## 2-2. 승정원의 업무처리과정

승정원의 업무는 다양했고 업무량도 많았지

11) 박정지, 「조선 성종대 승정원의 기능과 역할」,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2, 11-16쪽

12) 한충희, 「朝鮮初期 承政院注書 小考」, 대구사학회 대구사학회 제75집, 2004. 5, 40쪽, 56-60쪽

만 왕명출납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업무였다. 왕명출납이란 단순히 임금의 명을 하달(下達)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관료들의 각종 의사나 의견들을 상달(上達)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임금이 말이나 글을 승정원에 전하는 과정이 다양했는데 승전색을 통해 승정원에 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sup>13)</sup> 승전색 뿐만 아니라 궁금(宮禁)에서 말을 전하는 관원인 사알(司諫)을 통하는 경우도 있었고 승전색이 사알을 통해 승정원에 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외에 임금이 관료를 불러서 승정원으로 하여금 전교하게 하거나 승지를 불러서 직접 명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는 승전색을 통해서 승지를 불러 들었다.<sup>14)</sup>

승정원에서 임금에게 전달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였다. 글로 전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말을 승전색을 통하여 전할 경우에는 잘못 전달하거나 거짓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문서로 보고하게 하거나 승지들에게 내전으로 들어와서 직접 계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작은 일은 승전색을 통하여 전하고 큰일의 경우에는 승지가 직접 아뢰게 하였다. 승전색을 통하여 계달하는 경우에는 승정원에서 승전색을 불러내어 전하였다.<sup>15)</sup> 승전색이 항상 함문에 대기하고 있었던<sup>16)</sup> 이유도 이러한 전달과정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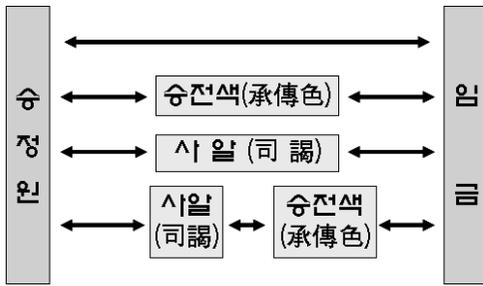
이 과정들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13) 『문종실록』 2년 임신(1452, 경태 3) 3월30일(계해)

14) 『명종실록』 8년 계축(1553) 9월 18일(신유), 『중종실록』 36년 신축(1541) 6월 1일(병진), 『중종실록』 10년 을해(1515, 정덕 10) 9월 19일(임인), 『예종실록』 즉위년 무자(1468) 12월 17일(계묘), 『태종실록』 18년 무술(1418) 7월 6일(갑인) 참조

15) 『세종실록』 20권, 5년(1423) 6월 2일(신해), 같은 책 26권, 6년(1424) 10월 25일(병인), 『중종실록』 13년 무인(1518) 2월 14일(계미), 유희춘 『미암일기(眉巖日記)』 제3권 365-366쪽 참조

16) 正祖 『弘齋全書』 제167권 일득록(日得錄) 7 정사(政事) 2



<그림 1> 승정원의 왕명출납 과정

### 3. 승정원의 건축공간

#### 3-1. 정원청과 주서청

##### (1) 승정원청

사료 B

1) 그 밖에 주방·등축방·인자방·상의원이며, 양전의 사옹방·상서사·승지방·내시다방·경흥부·중추원·삼군부와 동·서루가 무릇 3백 90여 칸이다.<sup>17)</sup>

2) 우연히 부름 받고 서헌(西軒)에 드니 뜰안의 청고함을 쉽게 논하라<sup>18)</sup>

3) 집현전 북쪽과 보루각 남쪽 사이에 넓고 조용한 빈터가 있었는데, 하루는 임금께서 선공감에 명하여 춘추관(春秋館)과 상서사(尙瑞司)를 그 동쪽과 서쪽에 새로 지어 실록과 보새를 모셔 두게 하고, 또 그 서남쪽에 행랑 30여 칸을 둘러서 세우게 하였다. 공사가 끝나자, 신 등이 행랑의 동쪽 두 칸을 내려주기를 청하여 마침내 승정원의 청사로 쓰니.....<sup>19)</sup>

태조 4년 경복궁 창건당시의 기록인 사료 B의 1)에는 ‘승지방’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것

17) 『태조실록』 4년(1395) 9월 29일(경신)조

18) 權近 『陽村先生文集』 제8권 詩類 新都八景 ‘入承旨房。次李學士韻 (承旨房에 들어가서 李學士의 시의 운을 차한다)’

19) 李荇 『新增東國輿地勝覽』 제2권 京都 下 承政院條

은 승정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창건 당시 승정원의 규모와 위치는 기록되지 않았다. 사료 B의 2)는 권근의 시로 ‘승지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태종 때 창건된 창덕궁의 승정원은 승정원청이라 했고 태조 때 창건된 경복궁의 승정원은 승지방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아 이곳은 경복궁의 승정원임을 알 수 있다. 이곳의 승정원에 서헌이 있었다. 그리고 대안사의 문이 있고 청(廳)이 있었던 기록으로 보아<sup>20)</sup> 창건 당시 경복궁 승정원의 공간형식은 가운데에 청이 있고 청의 좌우에 각각 동헌과 서헌이 있는 구조로 추정된다. 그리고 승정원청의 주위를 담이나 행랑이 둘러싼 ‘원(院)’의 형식이었을 것이다. 사료 B의 3)은 조서강(趙瑞康)의 신당기로 새로 지은 30여 칸의 행랑 중 동쪽 두 칸을 승정원의 청사로 쓰도록 하였다고 했는데 이 30여 칸의 행랑이 춘추관과 상서사의 건물인지 아니면 승정원의 건물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춘추관과 상서사를 새로 지은 것은 세종 22년의 일이고<sup>21)</sup> 이때 조서강은 우승지였다. 이 기문(記文)에서 승정원의 옛집이라 한 것을 보면 이때 승정원의 위치가 옮겨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실록의 기사에는 상서사와 춘추관만 언급되었을 뿐 승정원을 지었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승정원을 위한 공간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 사료를 통해서 승정원은 창건 때의 위치에서 이전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을 했다면 위치와 배치 등 승정원의 건축공간이 창건 때와는 달랐을 것이다. 성종 때의 기록인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경복궁 승정원은 월화문 밖에 있었다. 그 남쪽에는 사옹원이 있었고 서쪽으로는 홍문관과 예문관이 있었다. 그리고 최립(崔嵬)이 ‘은대(銀臺) 이십

20) 『세종실록』 9년 정미(1427) 6월2일(기미)

21) 『세종실록』 22년 경신(1440) 4월 15일(병술)

영(二十詠)’에서 홍련(紅蓮)과 백련(白蓮), 부평(浮萍), 배나무(梨) 등을 읊었는데 이것으로 보아 연못이 있었음을 알겠다. 그러나 연못이 승정원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sup>22)</sup> 그리고 승정원 앞에는 의막을 칠 수 있는 공터가 있었다.<sup>23)</sup>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승정원과 홍문관 앞쪽에 연못이 있고 승정원 앞쪽에는 공터가 있는 배치였을 것이다.

특히 승정원이 월화문 앞에 위치하면서 그 앞에 공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월화문이 왕명출납을 위한 중요한 동선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 사료 C

- 1) 일찍 정청에 앉았다가 다시 도영공의 방으로 가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물러나 새로 수리한 온돌방에 들어앉았는데<sup>24)</sup>
- 2) 더구나 다섯 사람이 함께 공청(公廳)에 있었고 여러 사람이 본 것이겠습니까?<sup>25)</sup>
- 3) 내가 조금 감기 증세가 있으니 동청이 판자의 방이기 때문이다. 저녁에는

서청의 온돌방에서 잤다.<sup>26)</sup>

- 4) 저녁에 우승지 최응경숙, 동부승지 김계(해숙)의 초청을 받아 루방(樓房)으로 가서 보고 담화를 하다가 한참만에 왔다.<sup>27)</sup>

사료 C의 1)은 유희춘이 우승지로 있을 때의 일이다. 이 기록에서는 ‘정청(正廳)’과 도승지의 방이 있는데 별개의 공간이다. 사료 C의 2)에는 다섯 사람이 함께 ‘공청(公廳)’에 있었는데 다섯 사람이란 『중종실록』 17년 9월 26일 기록에 의하면 승지 4명과 사관 1명이다. 이들이 승정원의 공청에서 모여 업무를 보고 있었다. 사료 1)의 정청이나 사료 2)의 공청은 같은 곳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업무를 보는 정원청이었으며 ‘대청(大廳)’이라는 명칭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sup>28)</sup> 정청의 규모는 작지 않았을 것이다.

사료 C의 3)은 유희춘이 우승지가 되어 승정원에서 숙직했을 때의 일이다. 이 기사에 의하면 승정원에는 동청과 서청이 있고 각각 板房과 온돌방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온돌방인 서청은 도승지의 방이었다.<sup>29)</sup>

사료 C의 4)에서 우승지, 동부승지가 함께 초청해서 루방에서 만났다면 루방은 공용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사료 3)의 동청인 판방과 같은 공간으로 판단된다.

22) 崔崐 『簡易文集』 제6권 拾遺, ‘銀臺二十詠 己未春有直赴殿試之命 于時以新恩 故注書李青蓮公出題韻 令急製以呈’ 기미년 봄이라 함은 저자인 최립이 활동시기를 고려하면 명종 14년(1559년)의 일로 여기에서 말하는 은대는 경복궁의 승정원을 말한다. 이 시에서는 승정원 주변의 사물 20가지에 대해 읊은 시인데 배나무가 등장한다. 『중종실록』 13년 무인(1518) 7월 20일(정사)의 기록에는 배나무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배나무는 승정원 안에 없었던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연못도 역시 승정원 안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홍문관 앞에도 연못이 있었는데(『명종실록』 1년 병오(1546) 7월 18일(임신)) 아마도 이 연못이 승정원과 홍문관 앞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3) 柳希春, 『眉巖日記』 제1권, 戊辰 7월 16일, 潭陽鄉土文化研究會, 1992, 424쪽

24) 柳希春, 『眉巖日記』 제2권, 庚午 10월 初七日, 潭陽鄉土文化研究會, 1993, 562쪽. ‘早坐正廳 復詣都令公房 暫話 退寓新修理溫突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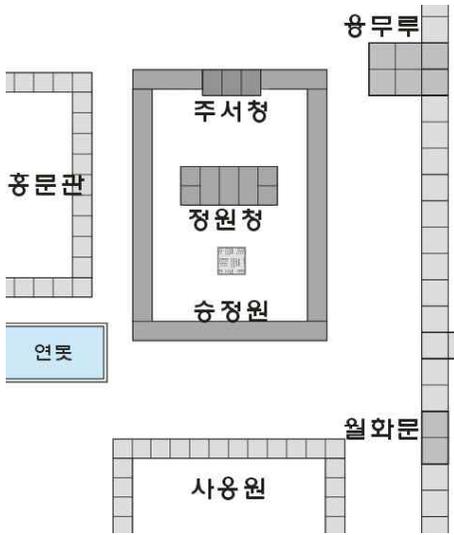
25) 『중종실록』 17년 임오(1522) 9월 29일(임신)

26) 柳希春, 『眉巖日記』 제2권, 庚午 九月 二十六日, 潭陽鄉土文化研究會, 1993, 552쪽. ‘余稍感冷 以東廳板房故也 夕 宿西廳溫突’

27) 柳希春, 『眉巖日記』 제1권, 戊辰 五月 十七日, 潭陽鄉土文化研究會, 1992, 340쪽. ‘夕 被右承旨崔顯景肅·同副承旨金啓晦叔之邀 往見于樓房 談話良久而來’

28) 柳希春, 『眉巖日記』 제1권, 戊辰 八月 十七日, 潭陽鄉土文化研究會, 1992, 474쪽

29) 柳希春, 『眉巖日記』 제2권, 庚午 九月 二十七日, 潭陽鄉土文化研究會, 1993, 553쪽. ‘晝歇于西廳都承旨房 招景濂 語以明日送漢風于潭陽’



<그림 2> 경복궁 승정원의 추정배치도  
(본 추정배치에서 근정전의 서쪽행랑은 「북궐도형」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사료 D

- 1) 승정원청이 3칸, 동행랑이 10칸, 남행랑이 4칸, 북행랑이 4칸, 외행랑이 5칸, 외루(外樓)가 3칸이다.<sup>30)</sup>
- 2) 상이 내반원에서 승정원으로 이어하고, 곡루(曲樓)를 침전으로, 남대청(南大廳)을 시사소(視事所)로 삼았다.<sup>31)</sup>

사료 D의 1)은 태종 5년의 창덕궁 창건기사이다. 승정원은 3칸의 승정원청이 있고 그 주위를 행랑이 둘러싸는 배치형식으로 승정원 전체 공간의 규모는 모두 29칸이다. 다른 기록에는 ‘원문(院門)’이 있는<sup>32)</sup> 것으로 보아 청(廳)이 담이나 행랑으로 둘러싸인 형식의 ‘원(院)’이라고 할 수 있다. 창덕궁의 창건기록에는 승정원의 위치가 기록되지 않아 어느 곳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런데 동행랑과

남, 북행랑은 각각 칸 수가 기록되어 있지만 서행랑은 칸수가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래 서행랑은 없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창덕궁의 승정원은 인정전의 동쪽에 있다고 했으며 『동궐도』에는 인정전의 동쪽 행랑에 붙어있다.(그림 7 참조) 『동궐도』가 조선 후기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조선전기 창덕궁의 승정원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승정원이 인정전의 동쪽에 있다는 기록과<sup>33)</sup> 서행랑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보는다면 창건 당시에도 승정원의 서쪽은 인정전 동쪽 행랑벽에 붙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승정원의 동쪽에는 사용원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승정원문 밖의 땅이 비좁다고 한 것을 보면<sup>34)</sup> 사용원의 담장이나 행랑이 승정원과 가깝게 인접해 있었던 것 같다. 승정원이 좁아서 연산군 때 옮겨지으려고 하였지만 선정전과 가까운 곳에 땅이 없어서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연영문을 먼저 고쳐지으라고 한 것을 보면 이때 연영문이 중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35)</sup>

사료 D의 2)는 중종이 창덕궁 선정문 안에 있던 내반원으로 이어(移御)해 있다가 다시 승정원으로 이어했을 때의 상황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승정원에 곡루와 남대청이 있었다. 승정원은 6명의 승지들에 의해 각각 분방되어 6조의 업무를 분담하였지만 출납하는 일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의논하여 입계한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sup>36)</sup> 남대청을 시사소로 삼은 것을 보면 이곳이 승지들이 함께 모여서 업무를 보던 공청이었다. 그런데 남대청이 남행랑에 있

30) 『태종실록』 5년 을유(1405) 10월 19일(신사)  
31) 『중종실록』 10년 을해(1515) 4월 5일(임진)  
32) 『태종실록』 6년 병술(1406) 윤7월 22일(기묘)

33) 李符 『新增東國輿地勝覽』 제2권 京都下 文職公署 承政院條  
34) 『태종실록』 9년 기축(1409) 2월 3일(정축)  
35) 『연산군일기』 10년 갑자(1504) 7월 7일(을미)  
36) 『명종실록』 7년 임자 (1552) 1월 26일(기유)

었다면 남향을 해야 할 임금의 시사소로는 적  
합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쪽에는 주서들의 업  
무공간인 주서청이 있었기 때문에 남대청이라  
고 했을 것이다. 또한 곡루를 침전으로 삼았는  
데 곡루란 창건기사에서 보이는 외루 3칸을  
의미할 것이며 침전이기 때문에 북쪽에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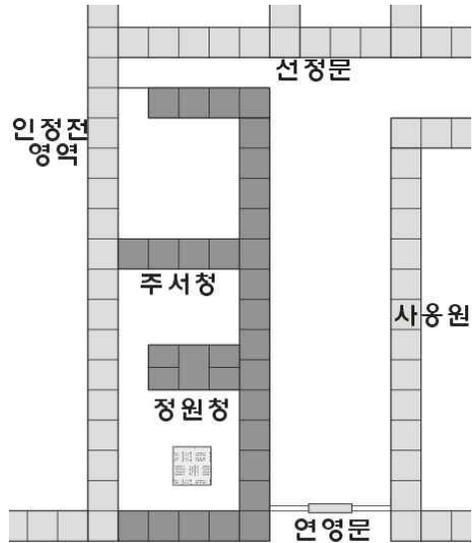
이처럼 경복궁이나 창덕궁의 승정원에는 승  
지와 주서 및 사관이 모두 모여 업무를 보는  
공간인 공청으로서의 대청이 있었으며 승정원  
의 중심공간이었다.

이상의 기록으로 창덕궁의 배치를 추정하면  
정원청은 4칸의 남행랑과 북행랑, 그리고 10칸  
의 동행랑이 삼면을 에워싸고 서쪽은 인정전  
동행랑의 담장으로 차단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외행랑과 외루는 정원청을 에워싼 행랑의 밖에  
위치해 있었을 것이며 사용원과의 관계를 보면  
외행랑은 동행랑의 동쪽이 아닌 북쪽으로 연결  
되었을 것이다.

(2) 승정원청의 구조

사료 E

- 1) 또 명패를 받아 승정원의 협실로 갔  
더니 좌부승지 이종호가 ‘ … ’ 하신 전  
교를 전해 주었다.<sup>37)</sup>
- 2) 전일에 좌승지 권경희(權景禧)·좌부승  
지 신수근(愼守勤)·우부승지 김심(金諶)  
이 협방(夾房)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며  
사시가 되도록 나오지 아니하여서, 신은  
때가 아님에도 점심을 들이여 보냈고,<sup>38)</sup>
- 3) 명륜당으로 향하여 당하관의 지영을  
받고 西夾室로 들어가 대사성 구공과  
봉령을 만났다. … 우리 2원은 다시 결



<그림 3> 창덕궁 승정원의 추정배치도  
(본 추정배치는 동결도형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어서 명륜당의 東夾室로 올라가 제생들  
의 정에 들어와 지존을 지영하는 의절  
을 보았다.<sup>39)</sup>

사료 E의 1)은 경복궁 승정원의 일이다. 유  
희춘이 종2품인 한성부 우윤이었을 때의 일로  
공적(公的)인 일 때문에 승정원의 협실에 갔  
다. 사료 H의 3)에는 좌부승지의 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협실은 승지 개인들의 방이  
아니라 공용공간이었을 것이다.

창덕궁 승정원청의 구조를 살펴보면 사료 E  
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방이 있었다. 3명  
의 승지들이 협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  
로 판단하면 협방은 승지들의 공간이었다. 정  
원청의 주변이 행랑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협  
방이란 정원청에 있는 공간일 것이다. 그런데  
명륜당의 서협실을 협실방으로 표현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sup>40)</sup> 협방도 협실과 같은 형태라

37) 柳希春, 『眉巖日記』 제4권, 癸酉 十月 二十四日, 238쪽. ‘又承命牌 詣承政院夾室 左副承旨李仲虎 ‘ … ’ 傳教

38) 『성종실록』 23년 임자(1492) 10월 4일(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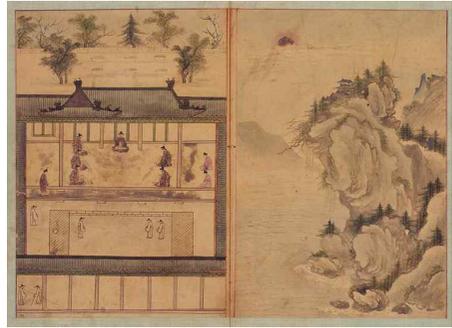
39) 柳希春, 『眉巖日記』 제4집, 癸酉 九月 二十一日, 潭陽鄕土文化研究會, 1996, 179쪽

고 하겠다. 창경궁의 승정원에는 동협당이 있었는데<sup>41)</sup> 협당이라는 것도 협실과 같은 형태로 판단된다.

사료 E의 3)은 협실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자료인데 성균관 명륜당의 동서쪽에 있는 공간을 협실이라 했다.<sup>42)</sup> 즉 협실이란 가운데 대청이 있고 그 좌우에 부속되어 있는 실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전기 정원청의 구조 역시 성균관의 명륜당과 같은 구조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협실이 성균관 명륜당과 같은 형태를 취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17세기 초의 기록물을 통해 조선전기의 승정원청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림 4>는 『은대계첩(銀臺契帖)』이라는 제목으로 한 쪽에는 산수화가 그려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승정원에서 계회(契會)하는 모습을 그렸다. 좌측에는 도승지 김상헌(金尙憲)을 비롯하여 좌승지 이명한(李明漢), 우승지 강홍중(姜弘重), 좌부승지 이민구(李敏求), 우부승지 이경석(李景奭) 그리고 동부승지 목서흠(睦敍欽) 등 여섯 승지의 인적사항이 적혀있다. 관원들이 계회를 갖는 시점을 보면, 신임관원이 왔을 경우 곧바로 출사연(出仕宴)이나 상견



<그림 4> 『銀臺契帖』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례 형식으로 전체 관원들이 계회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누구나 다른 관서로 발령을 받게 되면 신속히 떠나야 하기에 계회를 가질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대계첩』은 이들 6인의 승지가 한 관서에서 만나게 됨을 기념하여 제작한 것이며, 계회의 시점은 1632년 1월 말이나 2월 초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43)</sup>

1632년은 인조 10년으로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인조 10년 1, 2월에 임금이 경덕궁(慶德宮)에 있었기 때문에 은대계첩의 계회장소도 역시 경덕궁의 승정원이었다. 그리고 승지들이 모여 있는 곳은 함께 업무를 보는 공간인 대청일 것이다.

경덕궁은 영조 36년에 경희궁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sup>44)</sup> <그림 5>는 경희궁의 모습을 묘사한 서궐도안이다. 이 그림에 승정원은 승정전(崇政殿)으로 가는 통로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림4에서 보이는 승정원의 모습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경희궁은 순조 29년(1829) 10월에 불이 나서 회상전, 융복전과 집경당, 흥정당 등이 없어졌고 순조 31년(1831)에 중건하였는데<sup>45)</sup> 서궐도안은 이때 중건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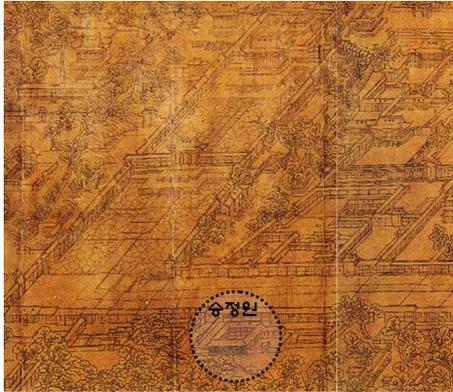
40) 柳希春, 『眉巖日記』 제3권, 壬申 十一月二十一日, 445쪽. ‘西夾室房長闔 故諸試官足坐矣’ 또는 같은 책 제4권 癸酉, 十一月 十三日, 265쪽. ‘受諸生庭揖 還入西夾室房 對茶啜’

41) 柳希春, 『眉巖日記』 제2권, 己巳 九月初十日, 168쪽. ‘承文院正字三人 持上尊號箋文來 希春出校于東夾室’

42) 명륜당의 동서쪽에 부속된 실을 협실이라는 한 것은 유희춘만이 사용한 용어는 아니며 변계량의 ‘명륜당기’나 성간의 ‘명륜당기’ 등에도 역시 협실로 표현하고 있다.(이행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권 경도 하(京都下) 문직공서 成均館條. 또 성간(成侃) 『眞逸遺稿』 卷之四 文 成均館記.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성간의 명륜당기로 되어있는데 『동문선』 82권이나 『眞逸遺稿』에는 성균관기로 되어있다.), 또 『증중실록』 1년 병인(1506) 11월 27일(임인) 이것으로 보면 명륜당과 같은 형태를 일반적으로 협실이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43) 윤진영, 「승지(承旨)들의 계회도 두 장명」, 문헌과 해석 통권 19호(2002년 여름), 문헌과 해석사, 91쪽 및 96쪽

44) 영조 36년 경진(1760) 2월 28일(계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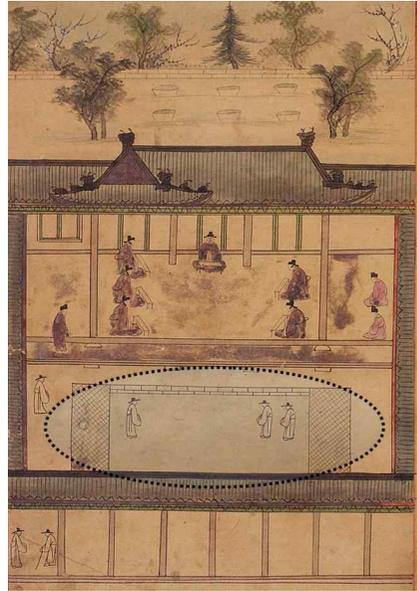
<그림 5> 서궐도안(西闕圖案)  
(문화재청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림에서  
부분 인용함)

이전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한다.

경덕궁은 은대계첩이 그려진 1632년 이후인 숙종 19년(1693년)에도 중건이 있었는데 ‘경덕궁을 영선하는데 2년 이상을 영선하였다’거나<sup>46)</sup> ‘경덕궁의 수리에 재력(財力)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sup>47)</sup>고 한 것을 보면 상당히 큰 규모로 중수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때 전체적인 모습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19세기 서궐도안의 승정원의 모습과 은대계첩의 승정원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그림 4>의 부분상세도인 그림6을 보면 중앙의 지붕이 조금 더 높게 묘사되어 있는데 정이 있고 그 좌우에 협실을 갖는 형태이다. 중앙에 앉아있는 6명은 승지들이고 우측에 앉아있는 2명은 주서일 것이다. 16세기의 승정원청은 1632년에 그려진 <그림 5>의 『은대계첩』의 모습과 유사했을 것이다.

그리고 성종 22년의 기록에 의하면 대간(臺諫)이 임금에게 아뢰는 일이 있으면 뜰 가운데에 자리를 펴고 기다리는데 다만 대간 1명이 와



<그림 6> 『銀臺契帖』의 부분상세도

서 아뢰는 경우 승정원 문 안에 작은 평상을 설치하고 기다리며, 합사(合司)하여 아뢰는 경우 승정원 문 밖의 뜰에서 대사헌 이하의 관원이 늘어앉아서 일을 아뢴다고<sup>48)</sup> 하였다. <그림 6>에서 보이는 뜰 가운데에 있는 시설물은(점선부분) 아마도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시설물은 『동궐도』에도 보이는 것으로 보아(그림 7의 점선부분) 모든 승정원에 설치되었던 것이다.

### (3) 주서청

위에서는 승지의 업무공간으로서의 승정원청이 있었음을 살펴보았는데 승정원에는 승지들의 업무공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 사료 F

- 1) 주서청의 그림병풍에 제하다<sup>49)</sup>
- 2) 승정원은 근밀한 곳이라 무릇 내고 들이는 공사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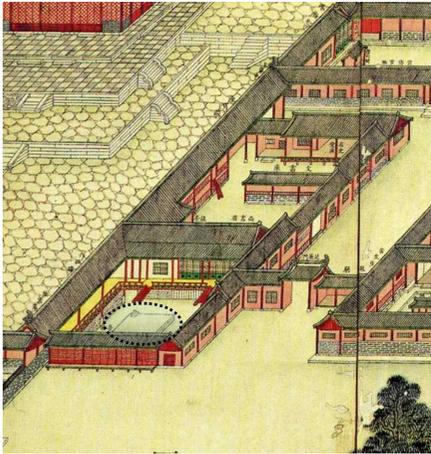
45)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서울학번역총서 II. 궁궐지 2』 1996. 2, 82쪽

46) 『숙종실록』 20년 갑술(1694) 10월 7일(신축)

47) 『숙종실록』 20년 갑술(1694) 10월 18일(임자)

48) 『성종실록』 22년 신해(1491) 7월 30일(갑진)

49) 주세붕(周世鵬) 『武陵雜稿』 卷之三 原集 詩 ‘題注書廳畫屏’



<그림 7> 『동국도』 상의 승정원

…… 그리고 주서청(注書廳)에 조관(朝官)들이 어지럽게 출입하므로 모든 공사를 꼭 보고 알게 되니, 이제부터 출입을 못하게 하라.<sup>50)</sup>

3) 오후에 문 밖에 배진(陪進)하고 경부(敬夫)와 자미(子美), 경사(敬思)가 함께 정원에 들어가 상소한 다음 주서청에 앉아 저녁때까지 담화를 했다.<sup>51)</sup>

사료 F의 1)은 주세붕이 지은 『무릉잡고』에 수록된 시(詩)의 제목이다. 주세붕은 1524년(중종 19년) 11월에 춘추관기사관을 겸하여 예문관검열이 되었고 1547년(명종 2년) 6월에는 동부승지가 되었으며 이후 도승지까지 역임하였다. 그런데 주세붕이 승지가 된 이후에 주서청에 출입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한 주서가 된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이 기사는 예문관검열 겸춘추관기사관으로서 승정원에 파견되었을 때인 1524년 11월의 일이었을 것이다. 이때는 경복궁에서의 일로서 경복궁의 승정원에 주서청이 별도로 존재했었다.

50) 『연산군일기』 4년 무오(1498) 7월 26일(경신)

51) 김우평(金宇宏) 『開巖先生文集』 卷之三 雜著 西行日記 乙丑 八月條 ‘十三日 午後陪進門外。敬夫, 子美, 敬思共入政院。呈跪後坐注書廳。杯談終夕’

사료 F의 2)는 연산군이 승정원에 내린 전교인데 이 기록에 의하면 주서청이 별도로 있었다. 그리고 불과 며칠 후에도 역시 조관(朝官)들이 주서청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교를 내렸으며<sup>52)</sup> 주서가 ‘본청(本廳)’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sup>53)</sup> 판단하면 승정원에 주서들의 독립된 업무공간인 주서청이 있었다. 이 사료는 창덕궁 승정원의 일이다.

태종 5년의 창덕궁 초창 기사에는 승정원청이 3칸으로 되어있고 주서청은 없었다. 물론 주서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승정원일기』를 작성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서의 업무와 『승정원일기』를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했을 것이며 따라서 당시에도 승정원청의 주변 행랑에 주서의 업무 공간이 있었겠지만 주서청에 조관의 출입을 금하였다면 승정원청과는 구분된 공간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사료 F의 3)은 명종 20년(1565) 8월의 일이다. 이 내용은 김우평이 승려 보우(普雨)를 죽이라고 상소한 후 주서청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모습이다. 이때 임금이 창경궁에 있었으므로 이곳은 창경궁 승정원의 주서청이다. 이상의 기록에서와 같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에 모두 주서청이 있었으며 승정원은 승지들의 업무공간인 정원청과 주서들의 업무공간인 주서청이 별도의 공간으로 존재했었다.

#### 사료 G

나는 정원으로 들어가 혈소청에 앉아 승지 신담과 장사중과 더불어 만나보고 승전색을 청하여 계하기를<sup>54)</sup>

52) 『연산군일기』 4년 무오 (1498) 7월 29일(계해)

53) 『중종실록』 23년 무자(1528) 7월 12일(신사) ‘신이 지난달 27일에 본청(本廳)에 앉았는데, 원리(院吏) 박학령(朴鶴齡)이…….’ 이 기사는 주서인 안현이 상소한 내용으로 본청이라 한 곳은 『중종실록』 23년 무자(1528) 7월 14일(계미)의 기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서청을 말한다.

## 42 논문

승정원에는 정원청 외에 위의 사료 G에서 보듯이 혈소청이라는 곳도 있다. 혈소청이라는 명칭으로 보아 승지들이 휴식하거나 상계(上啓) 등의 업무로 승정원을 방문한 관료들이 대기나 휴식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때 유희춘은 정3품아문인 홍문관 부제학이었을 때의 일이기 때문에 혈소청은 주서의 공간이 아닌 승지들의 공간에 위치해 있었다.

### 3-2 승지방과 주서방

사료 H

1) 승지 등에게는 지금 행공(行公)토록 명했는데도 오히려 각각 방내(房內)에 있으며, 유관도 공무를 폐한 지 여러 달이 된다는 것은 신이 이미 들었습니다.<sup>54)</sup>

2) 요즈음 승지들이 자신만 편하게 하려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모두 방안에 드러누워 출납하는 모든 말을 주서(注書)에게 각방(各房)에 두루 알리게 한 다음 출납하기 때문에 일이 많이 지체됩니다.<sup>55)</sup>

3) 저녁에 정원에 가 金承旨를 찾았는데 먼저 좌부영공 朴素立의 방에 들어가니 金亨彦도 와서 만났다.<sup>57)</sup>

4) 옛 온돌방을 수리하게 했다. 내가 장차 거처할 셈이다.<sup>58)</sup>

사료 H의 1)은 승지들이 각각 방내에 있었

다고 하였고 사료 2)에서는 주서가 각방에 돌아다니며 알린 다음 출납한다고 했다. 승정원의 업무는 정부 6曹의 업무를 각각 분방하여 담당승지가 처리하지만 당사관의 경우 상언을 올리려면 친히 들어와 도승지에게 올리고 이후 도승지가 보고나서 차례로 돌려보고 잘못됨이 없어야 담당 승지가 입계(入啓)하고, 만일 잘못된 데가 있으면 일동이 의논하여 내준다고<sup>59)</sup> 하였다. 즉 모두 청에 나와 함께 모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방에서 주서를 통해 출납하고 있음을 비판한 것이다.

사료 H의 3)을 보면 승정원에서 좌부승지인 박소립의 방에 들어갔다고 하였고 위의 사료 C의 3)에서도 경복궁의 서청이 도승지 개인의 방이었다. 또한 좌승지의 방도 별도로 존재했던<sup>60)</sup> 것으로 보아 사료 H의 1)과 2)에서 말하는 각방이라 함은 승정원에 있는 승지 개개인의 방을 말하는 것이다. 이상은 경복궁의 일이지만 창경궁이나<sup>61)</sup> 창덕궁의 승정원에도<sup>62)</sup> 승지 개개인의 방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료들에 따르면 경복궁뿐만 아니라 모든 궁궐의 승정원에는 승지 개인의 방이 있었다고 하겠다.

사료 C의 3)에서 서청이 온돌방이었으며 사료 H의 4)는 유희춘이 예방승지였을 때인데 구온돌(舊溫突)을 수리하게 하였다는 것을 보면 승정원의 각 방은 이전부터 온돌방이었다. 이를 통해 보면 승정원의 승지 개인 방은 온

54) 柳希春 『眉巖日記』 제5권 丙子 七月二十一日 p.387 '余入政院 坐歇所廳 與承旨申滸·張士重相見 請承傳色啓口'

55) 『중종실록』 16년 신사(1521) 6월 23일 계묘)

56) 『중종실록』 31년 병신(1536) 4월 13일(정유)

57) 柳希春, 『眉巖日記』 제1권, 戊辰 五月初五日, 潭陽鄉土文化研究會, 1992, 321쪽. '夕 往政院 訪金承旨啓 先入左副令公朴素立房 金亨彦亦來會'

58) 柳希春, 『眉巖日記』 제2권, 庚午 十月初二日, 潭陽鄉土文化研究會, 1993, 557쪽. '令修舊溫突 余將入寓'

59) 『중종실록』 17년 임오(1522) 9월 29일(임신)

60) 柳希春, 『眉巖日記草』 제2권, 庚午 十月初二日, 557쪽

61) 위의 책, 제2권, 己巳 九月初一日, 160쪽. 이 기사는 유희춘이 이해 8월 26일에 좌부승지가 된 이후의 일로 창경궁의 승정원이었다.

62) 鄭惟一 『文峯先生文集』 卷之五 閑中筆錄 '時金希壽爲都承旨 公與薇入希壽房' 『중종실록』 18년 계미(1523) 윤4월 22일(임술)에 의하면 이때 김희수가 도승지가 되었으며 임금이 창덕궁에 있었으므로 이곳은 창덕궁의 승정원이었다.

돌방으로 되어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료 1

- 1) 무송 부원군 윤자운(尹子雲)이 매우 취하여 승정원 주서의 방으로 뛰어 들어 가서 그 자리에 있던 봉교(奉敎) 조문숙(趙文淑)을 불러 나오게 하여 말하기를,.....<sup>63)</sup>
- 2) (검상 기준(奇遵)이) 주서방(注書房)에서 당리(堂吏)를 불러 물으니 당리가 답하기를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하였다.<sup>64)</sup>
- 3) 최숙(崔淑)의 아버지 및 처부(妻父)와 공사(供辭)에 관련된 사람들을 승정원의 서리방(書吏房)에 가두었다.<sup>65)</sup>
- 4) 어영 대장(御營大將) 김익훈(金益勳)이 승정원 아방(兒房)에 나아와서 밀계(密啓)하기를.....<sup>66)</sup>

사료 I의 1)은 인정전 동무(東廡)에 연회를 열었을 때의 일인데 여기에서는 승지들의 방뿐만 아니라 별도로 주서의 방도 있었다. 봉교는 예문관 정7품의 관리인데 조문숙은 사관과 관련되어 주서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67)</sup> 사료 I의 2)는 경복궁의 승정원인데 이곳에도 주서방이 있었으며 임진왜란 당시 평양으로 피난갔던 상황에서도 승정원에 주서방을 마련한 것으로<sup>68)</sup> 보아 각 궁궐마다 주서청과는 별도로 주서방이 있었을 것이다. 주서의 경우 개인 방

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주서의 정원이 단지 2명이고 주서청이 별도로 존재한 것으로 보아 개인의 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료 I의 3)은 경복궁에서의 일인데 여기에는 서리방이 있었다. 경국대전에는 서리의 정원이 22명으로 되어있는데 서리방이란 이들이 머물러 쉬거나 일을 보는 공간일 것이다. 그리고 사료 I의 4)는 비록 17세기의 기록이지만 승정원에는 서리방 외에도 아방이라는 공간이 있었다. 아방은 비록 승정원의 예는 아니지만 조선 초기부터 존재했던 공간이었다.<sup>69)</sup> 아방이라 하는 것은 정원의 하례방(下隸房)이라 했다.<sup>70)</sup> 즉 근수나 수종 등이 거처하는 방이다.

이처럼 조선 전기 승정원은 승지들의 경우 각자의 방을 갖고 있었으며 주서와 서리 및 하례들도 그들의 공간을 갖고 있었다.

4. 결론

지금까지 조선전기 궐내각사의 하나로서 왕명의 출납을 담당했던 관아인 승정원의 건축공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승정원은 경복궁의 경우 월화문 앞에 위치해 있었으며 창덕궁은 인정전 동쪽에 위치하였는데 모두 정전이나 편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통과동선 상에 있었다.

승정원은 승정원소속의 승지와 주서뿐만 아니라 사관이 상주하면서 업무를 보는 공간이었다. 이들이 함께 모여 업무를 보는 공간은 공청인 대청 또는 승정원청으로 이곳은 승지들을 위한 공간이었으며 주서나 사관의 업무공간인

63) 『성종실록』 6년 을미(1475) 11월 16일 (신유)  
 64) 『중종실록』 14년 기묘(1519) 2월 24일(무자)  
 65) 『세조실록』 14년 무자(1468) 1월 19일(경진)  
 66) 『숙종실록』 8년 임술(1682) 10월 27일(경자) ‘御營大將金益勳詣政院兒房, 密啓曰’  
 67) 『承政院日記』 인조 3년 을축(1625) 5월 12일(기미), 7년 기사(1629) 2월 22일(무신) 24일(경술) 등 참조  
 68) 朴東亮, 『寄齋史草』 下. 임진잡사(壬辰雜事) 이 기록에서는 주서방에 여러 사관(史官)들이 모여있었는데 각 궁궐의 주서방 역시 사관들과 함께 쓰는 공간으로 판단된다.

69) 태조 7년 무인(1398) 8월 26일(기사)  
 70) 송시열(宋時烈) 『宋子大全』 宋子大全隨籥 卷之六 隨籥 卷之六十書 ‘兒房者. 政院下隸房也. 板. 謂粉板書啓也’

## 44 논문

주서청이 별도의 독립된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즉 승정원은 정원청과 주서청의 2원적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조선전기 승정원청의 구조는 중앙의 청과 그 좌우에 협실이 있는 공간으로 『은대계첩』에 묘사된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외에 청으로는 승정원 소속 관료들이나 업무를 위해 방문한 관료들이 휴식하거나 대기 할 수 있는 공간인 혈소청이 있었다.

청과는 별도로 업무를 위한 공간으로서 방이 있는데 정3품 당상관인 각 승지에게는 개개인의 방이 있었다. 이외에 정7품인 주서들에게도 주서청과는 별도로 주서방이 있었으며 서리들을 위한 서리방과 하례(下隸)들을 위한 공간인 아방 등 승정원 소속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공간들이 있었다.

### <참고문헌>

- 『經國大典』(국회도서관제공(누리미디어) 국역본 및 원문)
- 『조선왕조실록』 태조-인조 (고전번역원 제공의 번역본 및 원문)
- 『신증동국여지승람』(고전번역원제공의 번역본 및 원문)
- 柳希春, 『미암일기(眉巖日記草)』 제1-5집, 潭陽鄕土文化硏究會(번역본), 國學資料院, 1982(원문)
-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東闕圖』, 1991
-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서울학번역총서 II. 궁궐지 2』 1996. 2
- 곽순조, 「宮闕運營을 통하여 본 朝鮮前期 景福宮의 配置特性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동욱, 「조선초기 창건 경복궁의 공간구성」, 한국건축역사학회논문집 통권 15호, 1998
- 박경지, 「조선 성종대 승정원의 기능과 역할」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2
- 유희상, 「조선 초기 승정원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논문, 2000. 2
- 윤진영, 「승지(承旨)들의 계획도 두 장명」 문헌과 해석, 통권 19호(2002년 여름), 문헌과 해석사
- 이강근, 『경복궁』, 대원사, 1999년
- 장재혁, 「조선전기 경복궁의 건축형식에 관한 연구 : 예서에서 나타나는 예제운영과 건축체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2004. 2
- 한충희 「朝鮮初期 承政院注書 小考」, 대구사학 제78집, 2005. 2 대구사학회

접수(2011. 6. 10)

수정(1차: 2011. 8. 19, 2차: 2011. 9. 15

3차: 2011. 9. 26)

게재확정(2011. 9. 30)

#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Space of Seungjeongwon in the Early Joseon Dynasty

Yi, Jeong-Kuk  
(Dari Architects & Engineers)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architectural space of Seungjeongwon (承政院), the Royal Secretariat, in the early years of Joseon Dynasty.

The Royal palace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ts, political space, living space for king and his family and offices for government official in the palace. So first, we shoul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pace in the Royal Palac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following.

Seungjeongwon of the Joseon Dynasty was where Seungji (承旨), Juseo (注書), Sagwan (史官), Seungjeonsaeg (承傳色), Seori (書吏) and Harye (下隸) worked together. The architectural space of Seungjeongwon was separated into Jeongwon-Cheong (政院廳) and Juseo-Cheong (注書廳).

Jeongwon-Cheong was the office for Seungji, where Sagwan worked as well as Seungji and Juseo. The form of Jeongwon-Cheong (政院廳) in Kyung-bok Palace was similar to that depicted in Eundaegyecheop (銀臺契帖), which was painted the meeting of Seungjis. Juseo-Cheong was the office for Juseo and Sagwan and there was a break room.

Apart from Jeongwon-Cheong there were rooms where Seungji could work or take a rest. As with the office of Seungji, the space for Juseo also had rooms for Juseo. There were also rooms for Seori and Abang (兒房) which were rooms for servants.

---

Keywords : Seungjeongwon, Seungji-Cheong, Juseo-Cheong, Seungji-Bang, Juseo-Bang

---